

“여순사건 진상규명, 정부에 강력 촉구해 달라”

범국민연대, 유엔 보고관 면담 관련 보유 기록물 완전공개 등 내년 발송 권고사항 포함 요청

기록물 완전 공개와 협조를 비롯해 미국정부가 보유한 여순사건 관련 문서 제공, 직권 전수조사 필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협조, 정부의 공식 사과,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에 대한 배·보상 협력 등을 내년 3월 한국 정부에 보낼 권고사항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는 최근 서울 퇴계로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과 면담을 갖고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정부에 강력한 권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외교관 출신의 서형원 범국민연대 상임 대표를 비롯해 임송본 범국민연대 진실규명위원장, 최경필 사무처장이 대표단으로 참석했고, 이자훈 서울유족회장도 참석했다.

특히 주 크로아티아 대사 등을 역임한 서형원 상임대표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막중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비극적인 한국 현대사의 시작인 여순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공식 특별보고관의 방한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식 면담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제주4·3를 비롯해 위안부, 입양단체, 한국



여순10·19 범국민연대는 최근 서울 퇴계로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과 면담을 가졌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 제공

전쟁 피학살 유족, 강제징집노역자, 의문사, 간첩조작사건, 납북귀환어부, 강제동원, 형제복

지원, 서산계곡단, 삼정교육, 긴급조치 등 정부의 미흡한 과거사 피해유족 및 관련단체 대표들

과 순차적으로 면담이 진행됐다.

그동안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왔다.

한편, 범국민연대는 지지부진한 여순사건 신고접수와 소극적인 정부기관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 지원단 등 관계자들과 오는 15일 순천에서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29일에는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해 특별법 개정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한 기념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성진 기자

광양경제청, 중국 기업 유치 팔 건었다

칭다오지역 온·오프 투자설명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서울 코트라에서 ‘세계공급망 재편 대응 중국 칭다오지역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는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과 칭다오시 정부상무국과 공동으로 주관해 중국 제조 및 물류기업 20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근 세계 경제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광양만권 투자환경 홍보 및 중국기업의 투자 성공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중국·일본·호주·뉴질

랜드·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RCEP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한국 제조시설 및 물류 고려사항 안내, RCEP 발효 후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위험 요소 및 방지책, 광양경제청 투자환경 소개, 투자유치 절차 및 무역관 투자유치 지원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경제청은 에이치에이엠, 킴투스, 광양알루미늄, 마이벨로 등 광양만권 내 중국기업 투자 성공사례를 안내했다. 이어 중국 리튬이온전지 배터리 기업이 광양만권에 투자해 한국의 에너지저장시스템 부품을 장착 후 한국의 FTA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양국간 협력 사업을 소개해 참석기업의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세계 경제 탈동조화에 따라 공급망도 변화되고 있는데, 광양만권은 중국의 제조기업이 ‘메이드인 코리아’를 활용해 수출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며 “ESS용 이차전지, e-모빌리티 분야에 있어 지속적인 한중 협력사업 발굴과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이번 설명회에 이어 오는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2022 세계 ESS 엑스포, 9월 중국국제투자무역박람회, 11월 한·중·미 에너지저장장치 국제포럼에 참여해 급변하는 세계공급망 변화에 따른 맞춤형 기업유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권동현 기자



광양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원탁 1차 전체 회의에서 열린 토론회가 펼쳐졌다. /광양시 제공

광양 문화도시 추진협, 전체 회의 개최

광양시가 최근 문화도시 시민원탁 ‘공동(공정과 동행)’의 발대식과 1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공동은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로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시민원탁 전체가 모인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은 지난 3월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광양 시민을 여성, 청년, 청소년(아동), 다문화, 신중년, (시각)예술, 예술교육, 농촌, 공연문화, 경제 산업 등 10개 분야로 모집했으며, 최종 58명의 위원이 선정됐다.

지난 5월 한 달간은 광양읍 한옥재생시설에서 분야별 원탁회의를 진행하며, 문화도시에 대

해 공유하고 각 분야에서 시민이 바라는 문화도시 광양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위촉장 전수 등 발대식을 시작으로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소개하고 시민협의체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문화에 대한 시각 차이, 주체 의식이 있는 시민 거버넌스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며, 앞으로 광양시 문화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어 분야별 시민 원탁회의를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진행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차별화된 문화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했다.

/권동현 기자

고흥, 누리호 발사 성공 기원 특별공연

내일 우주발사전망대 일원

고흥군은 누리호의 성공적인 2차 발사를 지원하는 특별공연이 15일 최종 발사 시각 2시간 전에 최적 관람지인 고흥우주발사전망대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고흥군과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이번 공연은 온 국민

의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누리호의 2차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발사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3개 국·공립 기관의 예술가들이 최고의 기량과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과 함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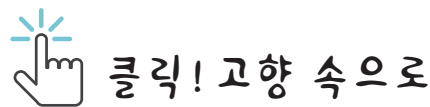
이와는 별도로 고흥군에서는 우주발사전망대 소재지인 영남초 과학꿈나무 초청행사,

현장 관람객이 동참하는 태극기 응원 등을 준비해 누리호 성공발사 염원을 하나로 담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야외 실시간 전광판 및 통신사 이동기지국 설치, 우주발사전망대 주변 교통요원 배치 등 관람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발사 실황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매년 고흥에서 실용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흥=진중언 기자



곡성 익명 기부자, 배추 500포기 기탁

곡성군이 최근 익명의 주민이 배추 500포기를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자는 입면에 거주하는 한 농가로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곡성군은 기부받은 배추를 지역 내 유아간보호센터 10개소에 전달했다.

기부자는 “재작년 수해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 평소에도 받은 것이 많

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돌려주고 싶었다”며 “나눔이 이렇게 기쁜 일임을 알았으니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기부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순천소방, 물류센터 화재 초기대응 훈련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가 최근 인월동에 있는 도서물류센터에서 화재초기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

순천소방서는 지난달부터 대형 물류터미널 및 대형창고 44개소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및 행정지도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김대영 센터장은 “대형 물류창고는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대규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물류창고 및 유사 장소의 화재 발생 건수는 60여 건에 달하며 재산피해는 약 1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순천=박경석 기자



보성교육청-수자원공사, 업무 협약

보성교육지원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수암댐지사가 최근 댐 주변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와 예술을 그리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댐 주변 지역의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의 전당 투어 프로그램과 미술관 전시회 관람, 세

계 음식문화 체험, 여가 생활 즐기기 체험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박명기 수암댐지사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